

북방어장 어망회수 작업 재개 호소

거진·대진 어민들 570닥 회수 못해 ... 해군 1함대 “종합적 안보상황 주시·빠른 작업 노력”

“더 늦춰질 경우 어망 복상으로 포기해야”

거진과 대진지역 어민들이 해군 1함대의 경계강화 방침에 따라 북방어장에서 조업 중 어려운 계선 이북 해역으로 흘러간 어망 570닥(5,700만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성군수협과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과 19일 이틀간 추진할 계획이었던 어려운계선 이

북 해역 어망회수 작업이 18일 일부 어선의 조업구역 이탈로 중단되면서, 19일 예정된 회수작업을 하지 못해 570닥의 어망이 방치되고 있다. 어민들은 복상 어망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기존에 걸려있는 대계와 어류 등이 부패해 해양오염을 가져오고, 남하하는 대계의 이

동을 가로막아 어족자원의 고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작업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어민들은 특히 조속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망이 더욱 복상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로 우려하고 있다.

고성군수협은 이에 따라 지난 2일 어민 대표들과 함께 해군 1함대를 방문해 북방어장 어망 회수작업을 위한 재진입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성군수협 관계자는 “어획량 감소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어민들이 어망 회수작업 지연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하루 빨리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군 1함대 관계자는 지난 8일 전화통화에서 “어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으로서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남북관계 긴장고조로 경계를 강화하는 입장 이어서 앞으로 종합적인 안보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빨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고성경찰서 향로봉중대 위문



고성경찰서(서장 이용완)와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함상욱)는 지난 9일 오전 11시 간성을 훌리 소재 12사단 향로봉 중대를 방문해 축구공과 탁구라켓 등 운동용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최광호 기자

“지역방재 구심점으로 헌신 다짐”

제18회 영북지역 소방경연대회 열려 ... 250명 참가

고성군 의용소방대 연합대(대장 함동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속초시 동우대학 운동장에서 개최된 영북지역(속초·고성·양양) 의용소방대 연합 소방경연대회에 회원 및 가족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영북지역 소방경연대회는 지역방재의 구심적 역할로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현장 활동능력 향상과 대원화합 및 사기진작, 소방경연대회 개최로 간접적 화재예방 홍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영북지역 3개 시·군 내빈 및 의용소방대원 등



지난 8일 개최된 영북지역 의용소방대 연합 소방경연대회 모습.

총 1천여명이 참가했다. 기술종목 2개종목, 체력단련 3개종목, 어울림한마당 2개종목 등 모두 8개 종목으로 구성해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한편 경기 결과 속초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고성군이 준우승을, 양양군이 3위를 기록했다.

박승근 기자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 캠페인

노인회 고성군지회 ... 5개 읍면 분회 활동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지회장 김완식)는 지난 7일 간성을 분회를 시작으로 5개 읍면 분회별로 어린이 유괴 및 성범죄 추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은 간성을 시가지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 최광호 기자

대대리서 베트남참전 전몰용사 추모제 개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고성군지회(지회장 임양수)는 지난 9일 오전 10시 대대리 베트남참전 기념탑에서 윤승근 고성신문 발행인을 비롯한 기관단체 관계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참전 전몰용사 추모제를 개최했다. 박승근 기자